

도입
기도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루를 잘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시간 이자리에 주님을 초청합니다. 우리안에 충만한 임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x3)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x2)

Over the mountains and the seas your river runs with love for me
And I will open up my heart and let the healer set me free
I'm happy to be in the truth and I will daily lift my hands
for I will always sing Of when your love came down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oh I feel like dancing it's foolishness I know
but when the world has seen the light
they will dance with joy live we're dancing now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본문 골로새서 2:6-8

- 6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 7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 8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Colossians 2:6-8

- 6 Therefore, as you received Christ Jesus the Lord, so walk in him, 7 rooted and built up in him and established in the faith, just as you were taught, abounding in thanksgiving.
- 8 See to it that no one takes you captive by philosophy and empty deceit, according to human tradition, according to the elemental spirits of the world, and not according to Christ.

설교

바울은 약 2천 년 전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지만, 그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놀라울 만큼 적절합니다. 그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2:6)고 권면했습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아침에 잠깐 기도하거나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선택을 형성해 가도록 허락하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을 때, 그분의 진리가 우리의 삶 깊이 뿌리내려 우리를 세워 주며, 그 결과 감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2:7). 이후 바울은 경고합니다. “아무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라”(2:8). 그의 시대에는 거짓 교사들이 세상의 지혜로 복음을 왜곡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거짓 철학은 성전의 강단이 아니라 손안의 화면 속에서 다가옵니다. 우리가 읽고 보고 듣는 것은 곧 우리가 “함께 걷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보다 미디어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는 서서히 문화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소비하는 콘텐츠가 나를 예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가, 아니면 멀어지게 하는가?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을 그분의 진리로 평가하라는 도전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십계명, 산상수훈, 성령의 열매—과 다르다면, 그것은 세상의 길이지 하나님의 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질투, 분노, 교만이 자라난다면, 잠시 멈추어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받고,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의 분별력으로 걸어가갈 때, 우리의 삶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진리를 드러내는 살아 있는 증거가 됩니다. 디지털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매일 세상의 소리보다 그분의 음성을 더 크게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자유롭고 기쁨으로 충만하며, 모든 세대 속에서도 여전히 변화를 일으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게 됩니다.

설교

Paul wrote to the believers in Colossae nearly two thousand years ago, yet his message could not be more relevant today. He told them, “As you received Christ Jesus the Lord, so walk in Him” (2:6). Walking with Christ is not a quick morning prayer or a Sunday routine—it is a continual journey of letting Him shape our hearts, thoughts, and choices. When we walk with Jesus, His truth takes root deep within us, strengthening and building us up, so that gratitude naturally flows out of our lives (2:7). Paul then gives a sober warning: “See to it that no one takes you captive through philosophy and empty deceit, according to human tradition” (2:8). In his day, false teachers twisted the gospel with worldly ideas. Today, the philosophies of the world often come not from the temple courts, but from the glowing screens in our hands. What we watch, read, and listen to is what we “walk with.” If we spend more time being shaped by media than by Scripture, we slowly become disciples of the culture rather than followers of Christ. We must ask ourselves: Is what I consume drawing me closer to Christ or farther from Him? Paul’s call to “walk in Christ” challenges us to evaluate everything by His truth. If what fills our minds contradicts the teachings of Jesus—the Ten Commandments, the Sermon on the Mount, the fruits of the Spirit—it belongs to the world’s way, not God’s. When our hearts mirror jealousy, anger, or pride, it may be time to step back and let the Spirit renew our minds. But when we walk with Christ—guided by His Word, thankful in His grace, and discerning through His Spirit—our lives become living testimonies of truth in a world lost in noise. To walk with Christ in the digital age means choosing daily to let His voice be louder than the world’s. As 2 Corinthians 10:5 reminds us, we take every thought captive and make it obedient to Christ. Only then can we live freely, joyfully, and fruitfully, showing that His presence still transforms hearts in every generation.

나눔질문

1.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모든 영역에 걸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그분의 마음 안에 합한 생각과 행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행하거나 말할 때는 언제인가요? 이야기 나누어봅시다.
Through today’s passage, Paul reminds us that God is present in every area of our lives and that we must think and act in ways that align with His heart. When are the times that I fail to reflect God’s heart in my words or actions? Let’s share together.
2. 바울은 우리의 삶의 철학이나 생활 방식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걸음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 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 속에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와 반대 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적은 없나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Paul teaches that our life philosophy and lifestyle should align with the heart of God. Have you ever found yourself holding thoughts or beliefs that go against the truth of Scripture? What were they?
3.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철학이 성경 중심의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 내 안에 행하거나 소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In order for our thoughts and philosophy to remain grounded in the truth of Scripture, what practices or habits should we cultivate or engage in? Let’s discuss together.

마침기도

사랑의 주님 오늘 세상의 가치관과 철학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집중하기에 힘써야 하는 성도의 삶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항상 주님이 원하시며 인도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Loving Lord, thank You for reminding us today that we must strive to hold onto and focus on Your heart amid the values and philosophies of this world. May the words of our mouths and the meditations of our hearts always reflect the way You desire and lead us to live. We thank You and pray in Jesus’ name. Amen.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기도제목

1. 항상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하며 행동하는 삶의 태도를 나타내게 하소서.
Help us to live each day Coram Deo – before Your presence – speaking and acting with reverence and integrity.
2. 내가 소비하는 콘텐츠가 쾌락이나 정치나 바라는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집중하는 삶의 태도가 되게 하소서.
Keep us from consuming content driven by pleasure, politics, or worldly desires, and help us to focus on what is good and pleasing to You.
3. 오직 진리 안에 거하며 그 진리가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소서.
Let us dwell only in the truth, and may that truth become the standard of our lives.